

1980년대 김현 비평의 현실주의 개념 연구

한 래 희*

차 례

1. 들어가며
2. 객관적 현실주의와 삶의 총체성
3. 부정적 현실주의와 욕망의 양면성
4. 현실주의와 4·19세대의 자유

국문초록

리얼리즘을 선형적 진리로 간주하는 풍토를 강하게 비판한 김현은 1980년대 들어 현실주의 개념을 작품 분석·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고는 1980년대 김현의 평론에 자주 활용된 현실주의 개념의 이중적 양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현 비평에 나타난 현실주의 두 양태와 그 내적 논리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김현이 지향한 총체성과 문학적 자율성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김현의 김원일론에 나타난 객관적 현실주의와 총체성 개념을 검토하였다. 김현에 따르면 김원일은 총체적 현실 파악 욕망을 보여 주는데 김원일이 지향한 총체성은 재현적 리얼리즘의 그것과는 명확히 차별화된다. 김원일은 현실/욕망의 갈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고통의 뿌리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닿아 있다는 깨달음을 보여준다. 김원일론을

* 숭실대학교 교수

통해 김현은 문학의 총체성이란 삶이 현실과 욕망의 상호작용임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란 점을 부각시킨다.

3장에서는 김현의 이청준론에 나타난 부정적 현실주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김현이 말하는 이청준의 부정적 현실주의는 고통의 현실 이외의 곳에서 초월·구원을 찾지 않으려는 정신적 태도를 의미한다. 부정적 현실주의는 꿈으로서의 문학이 초월주의나 도피주의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창작 방법론이자 세계관으로 요청된다.

김현의 현실주의가 객관적 현실주의와 부정적 현실주의의 두 가지 이질적 양태로 나타난 이유는 김현이 설정한 총체성 개념과 욕망의 양면성에서 찾을 수 있다. 김현에게 삶의 총체성은 현실과 욕망의 얽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욕망을 소외시키는 형태의 총체성은 욕망의 이름 하에 부정의 대상이 된다. 욕망의 뿌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욕망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면서(객관적 현실주의), 욕망이 도피적·이기적 형태로 발현되지 않도록 현실이 구원의 장소라는 세계관이 요청된다.(부정적 현실주의)

그러나 김현의 현실주의와 문학적 자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욕망 그 자체라는 점은 김현 비평이 처한 최대의 딜레마이다. 욕망은 개인과 사회의 공통의 근원인데, 욕망은 유토피아적 열망과 파괴성이라는 모순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드러냄'이라는 현실주의의 목표는 욕망의 고착화(이데올로기화)에 대한 의심·경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

4장에서는 김현의 현실주의와 4·19세대로의 김현의 자유 개념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김현에게 4·19는 환희와 절망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김현이 문학에서 추구한 자유의 이중성과 정확히 대응된다. 김현이 지향하는 총체성은 오직 문학 속에서만 가능하고 역사·현실은 언제나 문학적 총체성에 비추어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문학을 통해 유토피아적 상태를 경험한 의식은 총체화의 대상인 역사·현실로부터의 분리를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꿈으로서의 문학과 부정적 현

실주의를 채택한 비평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일 것이다.

주제어: 현실주의, 총체성, 욕망의 이중성, 초월주의, 4·19, 문학적 자율성, 자유

1. 들어가며

본고는 1980년대 김현 비평에 나타난 현실주의의 두 양태와 그 내적 논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김현의 현실주의가 지향한 총체성과 문학적 자율성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70년에 발표한 「한국 소설의 가능성」에서 김현은 리얼리즘을 선형적 진리인 것처럼 간주하는 1960년대 비평계의 풍토를 ‘새것 콤플렉스’의 발현이라 보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 글에 따르면 “인간 사이의 차이, 개인의 안팎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사론”¹⁾은 대상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실제로는 ‘진부한 생’을 재현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도구적 문학론에 객관적인 것은 선(善)이어야 한다는 도덕률까지 더해져 상투적인 도식만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현은 로브-그리에의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소설가의 임무는 “실재 réel²⁾를 창조하는 자”이지 현실을 복사하는 자가 아님을 지적한다. 김현이 보기에 한국 소설이 당파성과 도식화에서 벗어나려면 역사에 따른 실재의 변화를 느끼며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지각 방법과 의미의 세계를 창조³⁾해야 한다. 예술에서의 진실이란 “상상력의 현실에

1) 김현, 『한국 사회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72쪽.

2) ‘réel’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에 따라 리얼리즘 논쟁은 좁힐 수 없는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réel에 대한 김현의 견해에 대해서는 본론 후반부에서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3) 김현, 위의 책, 78쪽.

대한 반응”이고 상상력은 시대와의 긴장 속에서 도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각 방법을 창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리얼리즘 비판과 관련해서 볼 때 1970년대 김현 비평은 서구 문학 이론 연구를 통해⁴⁾ 반영론적 리얼리즘 극복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간 시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비평계를 총정리하는 형식을 띤 「비평의 방법」(1980)⁵⁾은 김현의 리얼리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1970년대의 비평과 비교할 때 그 이전의 비평은 객관성·절대성·보편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비평에 해당한다. 리얼리즘이 신봉하던 보편성이 무너지면서, 70년대 비평의 다양성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객관성·절대성·보편성이란 것은 없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라는 과학적·철학적 발견 때문이다. 이 글에서 김현은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을 구분하고 전자가 문학을 현실 개조의 도구로 보았다면 후자는 문학의 임무를 현실적 고통의 있는 그대로의 드러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현의 입장에서 볼 때 실천적 이론이 지향하는 리얼리즘은 여전히 절대성·보편성에 대한 집착하는 비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80년대 김현 평론에서 ‘현실주의’가 작품 분석 방법이나 평가의 기준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청준 소설론인 「떠남과 되돌아옴」(1986)에는 부정적 현실주의를 평가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객관적 현실주의로의 길」(1987)은 제목 그대로 객관적 현실주의를 통해 김원일 소설이 높은 문학적 성취를 달성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현실주의 개념의 활용은 소설론에만 한정되지 않

4)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70년대 김현은 바슐라르, 프랑크푸르트 학파, 구조주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자신의 ‘문학은 유토피아적 꿈’이라는 문학론을 구체화해 간다.

5)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92, 335쪽. 이 글에서 김현은 참여/순수의 대립을 실천적 이론/이론적 실천의 구분으로 재개념화하며 소모적 대립을 극복하고 문학비평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대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는다. 정현중 시론인 「술취한 거지의 시학」(1985)을 보면 정현중을 신비주의자나 낭만주의자와는 구별되는 현실주의자라 칭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말들의 풍경』(1990)에 실린 「영원히 갇힌 빈 방의 체험」에서는 기형도의 시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규정하고 시의 새로움을 분석하고 있다.⁶⁾

그간 김현의 리얼리즘 비판이나 ‘문학의 자율성/사회적 책무’ 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일정한 성과와 더불어 몇 가지 한계도 발견된다. 「감수성과 상상력의 리얼리즘」⁷⁾에서는 『문학과 지성』의 문학론을 검토하며 ‘문지’가 말하는 리얼리즘은 사조나 기법이 아니라 문학 정신으로서의 리얼리즘이고, 김현이 리얼리즘이 불가능한 이유는 시민계급이 없기 때문이라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김현이 상정한 리얼리즘은 시민계급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시민 계급의 부재로서만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지하 붐’과 김현, 문지, 최승자」⁸⁾에서는 1980년대 김현이 말한 문학적 저항이 현실 비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적 태도까지 겨냥한 것이고 “날 것 그대로”의 직접적 참여 방법이 지닌 허구성을 파괴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 김현 비평의 지향점을 적절하게 요약한 지적이지만 이러한 작업이 그의 실제 비평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그 성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 「김현과 바슐라르」⁹⁾라는 논문은 김현의 바슐라르 연구가 서구적인 것에 대한 경사와 루카치류의 반영론에 포박된 비평을 극복하기

6) 김현의 실제 비평에는 리얼리즘 대신 ‘현실주의’란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기형도 시에 대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모사론적 리얼리즘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현실주의란 표현을 선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7) 허선에, 「감수성과 상상력의 리얼리즘」, 『한국현대문학연구』 51호, 한국현대문학회, 2017.

8) 박연희, 「‘김지하 붐’과 김현, 문지, 최승자」, 『동악어문학』 76호, 동악어문학회, 2018.

9) 박연희, 「김현과 바슐라르」, 『구보학보』 20호, 구보학회, 2018.

위한 방법임을 지적한다. 김현은 바슐라르의 감싸기와 문학적 상상력 개념을 통해 저항의 리얼리즘의 문법에 치중해 있던 관행을 극복하고자 김수영, 김지하의 시를 바슐라르적 맥락에서 재독해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이 결과 김현 특유의 내재적 비평이 완성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이 1970년 비평에 치중해 있어 1980년대에 들어 김현이 리얼리즘 개념을 어떤 비평적 전략을 가지고 변용·활용했는가라는 논의는 빠져 있다. 「김현 비평에서 ‘이론적 실천’의 의미와 비평의 역할」도 본고의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김현의 이론적 실천 방법론에서 문학이 작품의 외적 현실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분명한 해법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작가-작품-현실의 관계를 작가-작품-비평가(독자)의 관계로 치환한 것에 그쳤음을 비판한다. 본고는 이론적 실천의 방법론이 4·19세대로서의 김현의 자유 개념과의 관련성 하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김현의 현실주의 개념이 4·19의 이중성에 대한 김현의 태도와 맺고 있는 연관성을 새롭게 조명하려고 한다.¹⁰⁾

10) 이 외에도 본고의 논의와 연관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문학의 자율성과 정치성의 관계를 다룬다룬 연구(오형엽, 「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호 침투적 종합: 김현 비평 방법론의 방향성」, 『비교한국학』 28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0; 이현석, 「개인과 내면의 공통체: 이청준과 김현 문학론의 전개와 논리」, 『한국현대문학연구』 59호, 한국현대문학회, 2019; 조연정, 「김현 비평에서 ‘이론적 실천’의 의미와 비평의 역할」, 『현대문학의 연구』 5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박혜원, 「김현 비평의 미학적 정치성 연구」, 『상허학보』 52권, 상허학회, 2018), 서국 문학 이론의 수용·해석과 관련된 연구(강계숙, 「김현 비평의 사르트르 수용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22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강계숙, 「비평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 ‘신비평 논쟁’의 수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황호덕, 「전위의 구조, 롤랑 바르트의 신화지와 김현의 한국문학사론」, 『비교문학』 85호, 한국비교문학회, 2021; 박연희, 「김현과 바슐라르-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20호, 구보학회, 2018), 4·19세대를 중심으로 둔 연구(김형중, 「문학, 사건, 혁명: 4·19와 한국문학」, 『국제어문』 49호, 국제어문학회, 2010; 서은주, 「1960년대 4·19세대의 비평의식과 서정주론」, 『한국문학연구』 48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본고가 김현의 ‘현실주의’ 개념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김원일론에 나타난 현실주의 개념의 독특함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반영론적 리얼리즘과 선조적 역사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김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는 의외라는 인상을 준다.

작가로서의 김원일의 뛰어난 점은 그가 주관적 현실주의에 안주하지 않고, 객관적 현실주의라 부를 수 있을, 역사적 현실의 총체적 제시를 목표로 하는 세계에 나아간 데에 있다. 그는,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전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추상적 관념주의의 세계에서, 이 고난의 땅은 이데올로기의 대립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었다는 주관적 관념주의를 거쳐, 이 땅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이렇다라는 객관적 현실주의로 나아간다. 그런 그의 객관적 현실주의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불의 제전』(1983)이다.¹¹⁾

김현은 김원일 소설의 변화를 추상적 관념주의, 주관적 관념주의, 객관적 현실주의로 정리하고 주관적 객관주의에 이르러 역사적 현실의 총체적 제시라는 목표로 나아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초기의 루카치¹²⁾가 『소설의 이론』에서 소설을 추상적 이상주의, 환멸의 낭만주의, 현실과 이상의 종합으로서의 교양소설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연상케 한다. 리얼리즘은 현실을 총체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소설은 역사·사회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명제를 김현 역시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소, 2016) 등을 들 수 있다.

11) 김현,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91, 173쪽.

12) 김현은 『문학사회학』의 루카치 설명 부분에서 문학사회학자로서의 루카치의 엄격한 스탈린주의자가 되기 이전에 발표된 『영혼과 형식』, 『소설의 이론』을 발표하던 시기에 한정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마르크시즘을 국시로 받아들이고 문학이 정치에 종속되어 버린 순간 문학의 사회학적 설명은 정치 도구로 변질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내용이다. 김현, 『한국 문학의 위상/문학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2, 246-250쪽 참고.

그러나 이어지는 글을 보면 김현이 루카치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나는 그가 걸어간 길만이 옳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걸어간 길은 매우 전형적인 길이며, 그런 의미에서 뜻있는 길이다. 그가 걸어간 길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추상적 관념주의, 주관적 체험주의, 객관적 현실주의의 길이 단계적으로 가장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사춘기·개화기·성숙기에 대응하는 이미지들로 꾸미려는 버릇이 있으나, 그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일면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올바르지는 않다. 예를 들어 카프카의 작품들을 어떻게 추상적 관념주의의 소설들이라고 한마디로 매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김원일은 성실하게, 자신의 필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그 길을 나아가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불의 제전』에 이르러 그의 길을 확고하게 구축한 셈이다.¹³⁾

김현은 김원일 소설의 단계적인 진전이 유일하게 올바른 역사관·문학관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역사를 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는 관점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지만 카프카 소설과 같이 그런 발전관이 적용될 수 없는 작품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단계적·발전론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김현에 따르면 김원일은 그러한 역사관을 적용하여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리얼리즘과 명확히 차별화된다. 그렇다면 김현이 말하는 작가 자신의 필연적인 움직임이란 무엇이고, 김현이 김원일 소설에 객관적 현실주의라는 평가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가 해명의 과제로 등장한다. 현실주의와 리얼리즘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러한 차이가 작품의 평가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본고가 김현의 현실주의에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위의 것과는 다

13) 김현, 『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3, 174쪽.

른 맥락의 현실주의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객관적 현실주의로의 길」(1987)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떠남과 되돌아옴」(1986)에서는 현실주의가 다른 방식으로 규정된다.

상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과 전체, 현상과 원리를 해석하려 하지 변혁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청준의 태도를 정신주의라고 비난할 수도 있으며, 그 연관을 변혁하려는 태도 자체까지를 해석하려 한다는 점을 들어, 이청준의 태도를 깊은 정신분석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다. 나는 그 두 태도 중의 어느 한쪽에 편들기보다는 그 두 태도의 얽힘이 바로 이청준의 세계를 이룬다고 보고, 그 세계를 현실적 정신주의, 비극적 현실주의라 부르고 싶다. 이청준의 세계는 정신주의의 세계이되 추상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원리를 탐색하려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며, 이청준의 세계를 현실의 밖으로 나가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로 귀환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세계라는 점에서 비극적인 현실주의이다.¹⁴⁾

위 글에서 김현은 이청준의 태도를 비극적인 현실주의라 규정한다. 이청준의 소설이 현실의 변혁이 아니라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주의라 할 수 있지만, 현실 밖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작동 원리 탐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그 이유로 지적된다. 현실적 정신주의와 비극적 현실주의라는 말이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김현이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주의가 정신주의나 비극적 현실 인식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주의가 왜 이번에는 정신주의나 비극적 세계관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의문이 해명되어야 김현이 문학과 현실 간에 어떠한 매개 요인을 설정하려 했고 부정적 현실주의의 현실 비판적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1980년대 김현 비평에서 나타나는

14) 김현,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93, 153쪽.

두 가지 형태의 현실주의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이 시기 김현 비평에서 현실주의는 창작의 방법론이자 세계관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김원일 소설론에 사용된 현실주의와 이청준 소설론의 현실주의 간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리얼리즘 개념과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있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토대로 김현이 리얼리즘/현실주의, 초월주의/현실주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은 이유와 현실주의를 정신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 이유를 탐구하려 한다. 그에 이어 “문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문학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방법”¹⁵⁾이 김현의 주요한 문학사회학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김현이 ‘문학을 통한 사회적 부정’을 ‘욕망’ 개념을 매개로 어떻게 수행하려 했는가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분석하려 한다. 결론에서는 (객관적 혹은 부정적) 현실주의의 개념을 통해 김현이 지향한 총체성과 자유 개념의 함의와 한계를 짚어 볼 것이다.

2. 객관적 현실주의와 삶의 총체성

김현은 1980년대 중·후반에 김원일 소설에 관해 세 편의 평론을 발표한다.¹⁶⁾ 관심의 정도와 평가의 수준 면에서 볼 때 김현 비평에서 1960년대의 최인훈, 1970,80년대의 이청준이 담당한 역할을 1980년대 중·후반에는 김원일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¹⁷⁾

15) 김현, 『한국 문학의 위상/문학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2, 301쪽.

16) 1980년대 중·후반에 발표된 김원일 소설론은 「달관의 역사적 의미」(1985), 「객관적 현실주의로의 길」(1987),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1990)이다. 세 번째 평론은 유고집에 실린 글이기 때문에 집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말들의 풍경』의 발간 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17) 김현은 「달관의 역사적 의미」에서 “나는 『바람과 강』을 통해서 김원일이 그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뿐만이 아니고, 80년대의 소설 공간에 중요한 주춧돌을 놓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 감동 잘하는 서정시인들의 감탄사를 빌어, 아,

이번 장에서는 김현이 김원일 소설론을 통해 리얼리즘의 목표 중 하나인 총체성을 어떻게 정의하였으며 그런 개념 정의에 담긴 비평적 전략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진영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인공인 그 소설은 주관적 체험주의의 흔적들, 그리움·두려움·반가움……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건들의 뒤로 스며들고, 전면에는 사건들만 나타난다. 그 사건들을 통해 김원일은 해방 후의 공간이 친일 세력에 의해 얼마나 깊고 넓게 훼손되어 있는가를 입증하려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친일 세력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지식인들의 객관적 분석을 억압, 그들이 설 땅을 좁힌다. 6·25의 뒤에는 친일 세력의 계속적 권력 행사가 숨어 있다. 그러한 인식은 『불의 제전』 이후에, 식민지 치하의 궤멸 의병의 참회의 기록이랄 수 있을 『바람과 江』(1985)으로 이어지게 되어, 김원일의 역사 인식의 지평을 크게 넓히고 있다.¹⁸⁾

김원일은 그러나 빨치산 소설을 쓰기 위해 그 소설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현실 파악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와 부딪쳐 그 소설들을 쓴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거기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좌익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한번은 그 문제와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비교적 성실하게 그 문제와 부딪쳐 일정한 문학적 성과를 얻고 있다. 그는 빨치산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 문학적 성공에 힘입어 가령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문학적 자리가 획득된다. 문학이 문화적 금기와 싸우는 자리까지를 의미한다면, 그의 문학은 그런 문학의 이름에 값한다.¹⁹⁾

위 인용문은 김원일 소설의 의의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첫 번째 글에서는 해방 후의 역사와 6·25로 인한 혼란의 뿌리가 친일 세력에까지 닿아 있다는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들어 김원일 소설을 높이 평

김원일, 하고 느낌표를 찍고 싶다.'라고까지 김원일 소설을 상찬하고 있다.

18) 김현, 『분석과 해석』, 176쪽.

19) 김현, 위의 책, 176쪽.

가하고 있다. 두 번째 글에서는 김원일이 기존의 소설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빨치산이란 소재를 문학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켜 금기와 싸우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글 모두 김원일의 '객관적 현실주의로의 길'이 역사 인식의 폭과 현실 인식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문학은 텍스트 외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평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면 김현이 강조한 문학의 자율성은 역사 인식에 종속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글의 “총체적 현실 파악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부딪쳐”라는 표현은 김현의 현실주의와 기존의 리얼리즘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김현은 김원일의 소설이 피해자들의 구원이나 억압된 민중 해방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와 대면했기 때문에 김원일이 빨치산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점을 “어쩔 수 없이”란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원일의 소설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복무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개인적 윤리와 발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서론에서 지적한 “자신의 필연적 움직임”이란 개인적 윤리와 욕망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현이 현실주의 개념에서 보편성·전형성보다 체험의 구체성과 개인적 욕망의 탐구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의 글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가 지나치게 보편적 전형에만 집착할 때, 다시 말해 작가의 개인적 체험과 그의 인물들이 지나치게 유리될 때, 창작의 불모성과 인물들의 비생동성으로 그와 인물 양쪽에서 다 같이 그에게 저항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기가 무섭게, 거기에 대한 반발처럼, 『불의 제전』에서 가장 점착성이 강한 아치골댁이, 안천총과 함께 떠오른다. 보편적 전형을 그리려는 그의 의도에 반하여, 아치골댁이나 안천총은 생생한 구체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 구체성의 본류는 김원일의 생체험이다.²⁰⁾

20) 김현, 위의 책 173-174쪽.

그러나 나는 그 4·4의 민요적인 보편적 시간이 한국인의 가장 원초적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서명이 습관화된 문학 풍토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 시간은 개인의 편차가 없어진 세계에서만이 가능한 시간이다. 개인이 없고 공동체의 성원들만 있는 곳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개인의 신화가 남아 있는 곳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 그 보편적 시간이다.(중략) 그가 보편적 시간에 집착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개별적 체험을 숨기는 한, 삶이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일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 사건이란, 놀라워라, 빛소리, 천둥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²¹⁾

첫 번째 글을 보면 작가가 보편적 전형에 집착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총체적 현실 인식을 중요시하는 소설의 경우 보편성·전형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인물과 작가의 ‘생체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인물의 생동성뿐만 아니라 창작 욕구도 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현이 보기에 김원일 소설의 힘은 보편성·전형성이 아니라 생생하고 구체적인 체험에서 나온다. 개인적 체험이 사라진 보편성의 강조가 문학의 구체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은 두 번째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다. 김현은 신경림 시를 통해 구체성의 원천인 개인적 편차와 욕망이 개입하지 않은 보편성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근대 문학은 개인의 개별적 체험에 기초한 문학이고 이것이 사라질 경우 보편적 전형은 남더라도 그것은 호소력과 구체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개별적 체험이나 개인의 욕망이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역사나 현실과 무관하다면 그것을 현실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김현의 답변을 알아보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1) 김현, 위의 책, 88쪽.

그는 유년기의 낙원을 한없이 연장시키고 싶은 욕망과 새로운 자유를 살아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 찢겨 갈등을 계속 일으킨다. 그 갈등을 제대로 다스리게 되는 것은 그가 성숙하여, 유년기의 낙원이라는 것은 없으며, 어머니는 거칠고 평범해도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이고, 낙원은 없다. 나는 장남으로서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감은 사회화의 결과이며 동시에 자기 기만의 결과이다. 그는 사회 속에 어떤 형태로든 자리잡으며, 동시에 자신의 새 가능성을 버린다. 그러나 김원일의 이야기하는 화자의 특이성은, 사회화가 사회의 여러 고질적인 악덕들과 야합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사회화의 역사적 의미를 되묻고 있다는 데에 있다.(중략) 이야기하는 화자의 가난·고통은 개인적인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뿌리를 갖고 있다. 그 두 뿌리가 사실은 하나의 뿌리라는 것을 인식한 데에 「마당깊은 집」의 소설로서의 뛰어난 점이 있는 것이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의 심리적 뿌리에 집착한다. 그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이다.²²⁾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1990)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제로 김원일 소설을 분석하는 글이다. 글 서두에서 김현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의 심리적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라는 목적을 밝힌다. 이전 글과 달리 이번 글은 ‘유년 시절의 낙원로의 회귀 욕망/현실적 당위’ 간의 갈등이 김원일의 이야기 욕망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다. 분석의 내용이나 용어 면에서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이 분석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원일 소설에서 발견되는 이야기의 욕망을 일으키는 오이디푸스적 갈등과 총체적 현실 인식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은 총체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주제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은 김원일의 소설이 아버지 없는 아들의 성장 과정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화자의 가난·고통이 개인적인 동

22) 김현, 『말들의 풍경』, 195쪽.

시에 사회적인 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게 만드는 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욕망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²³⁾ 김현에게 삶은 현실과 꿈, 혹은 현실과 욕망의 복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때²⁴⁾, 김현이 말하는 삶의 총체성은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부정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역사나 현실과 무관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욕망이 가진 사회적 뿌리를 깊이 성찰한 작가의 작품에서는 개인의 뿌리가 곧 사회의 뿌리라는 점이 드러난다는 점에 김현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총체적 현실 파악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부딪쳐” 소설을 썼다거나 “성실하게, 자신의 필연적인 움직임에 따르 그 길을 나아가며” 객관적 현실주의로 나아갔다는 표현은 반영론적 리얼리즘의 총체성 추구와는 궤를 달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현에게 총체적 현실 파악 욕망이란 현실을 자신의 욕망에 비추어 성찰하려는 욕망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의 필연적인 움직임이란 자신의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지니는 의미를 되묻는 과정을 뜻한다. 총체적 현실 파악은 욕망 성찰 과정의 산물이지 객관적인 역사 발전 법칙의 인식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현이 말하는 총체성은 개인적 욕망의 억압과 소외를 야기하는 역사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의 삶이 현실과 욕망의 상호작용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총체성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 의문을 던질 수

23)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평가한 기형도 시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좋은 시인이란 그의 개인적·내적 상처를 반성·분석하여, 그것에 보편적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인데 기형도는 이에 해당하는 시인라는 점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에서 분석·해석하고 있다.

24) 「소설은 왜 읽는가」(1985)에 나온 “현실과 꿈은 일상적 이야기나 환상적 이야기를 매개로 인간의 삶 속에 연결된다”라고 말을 보면 김현에게 인간의 삶은 현실과 꿈이라는 두 요소의 얽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욕망의 진실에 충실한 생체험을 담은 텍스트가 보편성과 전형성을 중시하는 반영론적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필연성에 따라 창조한 텍스트는 과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어떤 작품이 이데올로기적 현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문학이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기존의 현실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그것이 왜 현실 부정적 기능을 갖는 것일까.

1980년대 김현 비평에는 객관적 현실주의와 더불어 부정적 현실주의라는 개념도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위와 같은 도전적 질문에 대한 김현 답변에 해당한다.

3. 부정적 현실주의와 욕망의 양면성

이번 장에서는 김현이 설명한 부정적 현실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실주의 개념의 또 다른 형태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부정적 현실주의는 비극적 세계관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비극적 세계관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김현의 비극적 세계관은 골드만의 이론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양태는 동시에 그것에 알맞은 다양한 형식을 요구한다. 형식을 얻지 못한 세계관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관이란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관은 세계를 인식하는 한 유형인데 인식은 반드시 어떤 형태를 요구한다. 표현되지 아니한, 형식을 얻지 못한 인식은 극단적인 의미에서 혼란된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²⁵⁾

골드만에 의하면 i) 모든 위대한 예술·문학 작품은 세계관의 표현

25) 김현, 『현대 비평의 양상』, 146쪽.

이며; ii) 세계관은 작가나 사상가의 의식 속에서 개념적, 감성적인 최대 한도의 명확성을 얻은 집단 의식의 현상이고; iii) 사상가·작가는 그 집단 의식을 작품 속에 표현하는 예외적 개인 *individu exceptionnel*이다. 동시에 iv) 세계관은 어떤 사회 그룹과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환경 사이의 심적 표현 *expression psychique*이므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 (중략) 골드만이 들고 있는 세계관은 플라토니즘·신비주의·경험주의·합리주의·비극적 세계관·변증법적 사고 등이대[숨은 신, 30~33]; v) 세계관은 어느 시기에나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기에는 다른 기능을 발휘한다. 같은 세계관이 시기에 따라 혁명적일 수도 있고, 호교론적일 수도, 보수적일 수도, 퇴폐적일 수도 있다[숨은 신, 30]. 한 작품의 설명은 세계관과의 관련 밑에 완성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세계관을 감싸는 더 큰 의미 구조 속에 편입되어야 완전하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첫 번째 인용문은 세계를 이해하는 행위에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식을 갖추지 않는 인식은 혼란된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문학적 형식이 문학을 철학·이념과 구분하는 기준임을 말하고 있다. 골드만의 이론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문학 작품이 세계관의 표현이며 그것은 어떤 사회 그룹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탄생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품의 설명은 특정한 세계관과의 관련성 하에서 이루어지되 그 세계관을 감싸는 더 큰 의미 구조에 편입해서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비극적 세계관은 골드만이 들고 있는 세계관의 한 유형인데 이것은 시기에 따라 혁명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현은 비극적 세계관 혹은 비극적 현실주의가 왜 현실 부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가가 중요한 해명 과제로 등장한다.

26) 김현, 『프랑스 비평사』, 281쪽.

이청준의 비극적 현실주의는,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탐색하는 정신주의이다. 그러므로,

- 1) 이곳에는 삶의 의미가 없다 ;
- 2) 삶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
- 3) 그러나 놀라워라, 다른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곳 외에는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그의 정신주의—현실주의의 실제적 전언이다. 그 의미는 그러나 다른 곳에 가려 해야 나타날 수 있다. “세상을 퍽없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제물 에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의미 탐색에 나선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상인의 삶을 살 수도 없으며 이 세상 밖의 어떤 것에 신비롭게 자신을 내맡기지도 못한다. 어떤 의미에 몸을 맡길 때, 그 의미는 살아 있는 의미로 작용하기를 그치고 관습과 억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에게 남은 길은 자신이 탐색의 주체이며 대상 이 되어, 자기의 탐색의 과정이 의미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²⁷⁾

위의 글은 이청준 소설을 비극적 현실주의라 규정하고 그 세계관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김현은 이청준 소설을 ‘현실주의’라 규정 할 수 있는 이유로 “이곳 외에는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비극 적’인 이유는 현실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현 의 해석에 따르면 이청준 소설은 김원일 소설과 달리 “총체적 현실 파악 욕망” 때문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삶의 의미가 없고 고통스럽다는 현실 인식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김현은 이런 비극적 현실주의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 이청준의 「벌 레 이야기」를 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작품은 아이를 유괴하여 죽인 유괴범이 피해자가 용서를 하기 전에 신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이 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설이다. 김현은 알았이 엄마의 자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7) 김현, 『분석과 해석』, 159쪽.

자살은 세계의 의미 없음을 부정하는 부정적 세계의 행위이다. 자살은 의미 부여 행위이다. 자신이 부정적 행위의 주체가 됨으로써 부정적 세계를 부정하는 행위는 니체가 꿈꾸었으며, 도스토예프스키가 탁월하게 보여준 행위이다. 고통스러운 세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세계를 통해서이다. 그 부정의 행위는 자신을 속죄양으로 만듦으로써 세계의 무의미를 부수는 행위이다. 나는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그것만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정적 세계를 부수는 것과 같다—그 도저한 자기 인식을 나는 마적이라고밖에 다른 말로 부를 길이 없다.²⁸⁾

살해된 아이의 엄마가 선택한 자살에 대해 김현은 세계의 의미 없음을 부정하는 의미 부여 행위라 말하고 있다. 소설에서 알람이 엄마가 유괴범의 살인 집행 소식과 그의 마지막 말을 듣고는 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선택이다. 알람이 엄마의 자살은 그녀 자신의 입장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나온 행위에 가깝지 자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행한 선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나는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잘 드러나듯, 김현은 마치 그녀가 세계의 의미 없음을 부정하기 위해 능동적·적극적인 행동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파괴를 통해 현실의 수락을 거부하려는 정신을 경험한 것은 주인공이 아니라 작가이고 동시에 그러한 정신과의 ‘합치’²⁹⁾를 이룬 독자(비평가)라고 할 수 있다.³⁰⁾ 김현은 이청준 소설에서 정신

28) 김현, 위의 책, 160쪽.

29) 김현은 제네바학파의 일원인 폴레의 주제 비평을 설명하며, 폴레의 의식의 비평은 “남의 의식과 자기 의식을 합치려는 비평”이라 표현하고 있다. 김현, 『프랑스 비평사』, 321쪽.

30) 김현도 글 말미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전언은 이청준의 마성이 전하는 핵심적 전언이다. ‘그 가열한 정신주의’는 정신주의의 패배를 정신주의로 극복하는 현실적 정신주의이다.”라고 쓰고 있다.

과의 합치를 중시하고 이것을 비극적 현실주의라 부르며, 현실주의를 정신주의처럼 보고 있다고 해석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김현이 말하는 정신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비극적 현실주의 대해 김현이 현실주의와 정신주의를 혼동함으로써 관념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김현 비평을 관념론적·주관적 비평이라는 쉬운 비판에 그치기보다는, 김현이 말하는 비극적 현실주의 혹은 현실적 정신주의 개념의 이론적 근거와 그 타당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대립시키고 있는 사고/본능, 사실/꿈, 경험/상상은 그 어느 것도 그 본래의 성격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 그가 중간 지대라고 부르는 몽상의 지대 속에 흡수된다. 그의 표현을 빌면, 사고·사실·경험은 현실 기능 *fonction du réel*이며 본능·꿈·상상은 비현실 기능 *fonction du irréel*이다. 현실 기능은 닫는 기능 *fonction de fermeture*이며 비현실 기능은 여는 기능 *fonction de d'ouverture*이다. 비현실 기능이 작용하지 않으면 현실 기능은 둔해지며, 현실 기능이 작용하지 않으면 비현실 기능은 광태에 떨어진다.³¹⁾

그에 의하면 그 형식적 상상력은 i) 상상력을 헛된 텅 빈 구멍으로 생각하며; ii) 모든 것을 정태적·형식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그림을 그리려 하며; iii) 이미지를 재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현실 기능 *fonction du réel*에 집착해 있다. 그러나 그는 상상력이란 이미지를 재현하는 텅 빈 구멍이 아니라, 상상하려는 의지, 상상하는 것을 살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중략) “상상력은 인간 심리 속에서 열림의 경험 그 자체, 새로움의 경험 그 자체이다”[공기, 7]. 그것은 지각과 대립되는 개념인 것이다.³²⁾

『레 레트르 누벨 *Les Lettes nouvelles*』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씌어진 글에서, 폴레는 개인적·주관적 비평을 옹호하고 있다. 그에 의

31) 김현,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 89쪽

32) 김현, 『프랑스 비평사』, 203-204쪽.

하면 비평의 목적은 비평적 실재에 대한 내적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비평가는 그 실재를 재창조하기 위한 주관적 시도를 해야 한다. 그는 작품의 기본적 충동을 다시 느끼거나 다시 상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문학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이론에 어긋난다.(중략) 문학 텍스트는 폴레에 의하면 언어체도, 언어체로 이루어진 구조도 아니며, 살아 있는 의식적 실재이며, 사고이다.³³⁾

격자소설이라는 소설 양식은 전체와 개별의 대립·지양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소설 양식이다. 개별은 개별끼리 대립되면서 전체 속에 지양되고 그 전체는 다른 전체와 대립되면서 더 큰 전체 속에 지양된다. 그 대립은, 시골/도시, 생활/예술, 일상성/진정성, 가짜—예술/진짜—예술의 대립으로 그의 소설의 골격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러므로 놀랄 일이 아니다.(중략) 그 구조적 대응은 그의 예술이 만들어낸 탁월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대립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한 구조적 특징인 사용가치/교환가치의 대립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정황 자체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대립적 사고는 일상성 속에 닫힌 의식, 마르쿠제는 선동적 철학자가 일차원적이라 부른 의식을 일깨워, 일상성 속에 살면서 우리가 무의식중에 수용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반성케 한다.³⁴⁾

첫 번째, 두 번째 인용문은 바슐라르적 상상력을 설명하는 글인데, 여기서 김현이 *réel*이란 단어에 부여한 이중적 의미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사실·경험은 현실 기능이고, 꿈·상상은 비현실 기능 작용인데, 이 두 기능은 닫힘/열림의 대립과 동일하다. 현실 기능이란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쾌락 원칙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규제하는 법규들을 현실 원칙”³⁵⁾이라고 정의할 때의 현실 원칙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재현적 상상력과 역동적 상상력을 구분하고 전자는 현실 기능을,

33) 김현, 위의 책, 319쪽.

34)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 239쪽.

35) 김현, 『분석과 해석』, 226쪽.

후자는 열림·새로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즉 물질적·역동적 상상력³⁶⁾은 닫혀 있는 현실(réel)을 극복하고 열림·새로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점에 김현은 중점을 두고 현실과 상상력의 긴장 관계를 보고 있다.

세 번째 글은 제네바학파의 일원인 조르주 폴레 이론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김현은 문학 텍스트가 의식적 실재(réel)³⁷⁾이고 사고라는 점, 비평적 실재를 재창조하기 위한 주관적 시도라는 점에서 폴레 비평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문학의 본령은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의식적 실재이고 비평은 그러한 사고를 다시 느끼고 상상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réel)이란 현실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닫힌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재현은 열린 세계를 경험케 할 수 없다. 미학적 상상력을 통해 비평적 ‘실재’에 대한 지식에 도달해야만 닫힌 현실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때의 실재란 현실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이 아니라 “물리적·정신적 실재”를 의미한다.³⁸⁾

이창준 소설론인 네 번째 인용문은 문학이 닫힌 현실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김현에 따르면 이창준 소설은 부분/전체의 대립을 ‘시골/도시, 생활/예술, 일상성/진정성, 가짜—예술/진짜—예술의 대립’으로 치환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대립적 구도를 경험한 독자들은 자신이 닫힌 현실 속에 살고 있었고 어떠한 이데올로기의 지

36) 김현은 『행복의 시학』에서 형태적·재현적 상상력과 대립되는 상상력으로 물질적·역동적 상상력을 제시하고 이것의 특징을 열림, 순수함, 창조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현, 『행복의 시학』, 130쪽.

37) 김현은 réel의 의미를 두현실 원칙이란 의미의 현실(réel)과 의식적 실재(réel)의 두 가지로 나누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8) 김현은 베격의 말을 이용하여 “비평가란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을 통해서, 계속적인 탐구를 해나가야” 하며, “그가 작가론을 쓴 작가들은 그의 비평의 안내자들이며, 그 매개자를 통해 그는 그렇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을 물리적·정신적 실재에 도달”하려 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다. 김현에게 그의 비평의 안내자 중 대표적인 작가가 이창준, 정현중, 김원일 등이라 할 수 있다. 김현, 『프랑스 비평사』, 314쪽.

배 하에 있었는가를 깨닫고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이것은 세계/자아 간의 균열을 그에 상응하는 문학적 형식에 담아냄으로써 현실적 모순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³⁹⁾ 김현에 따르면 이런 경험은 현실을 벗어나 억압 없는 세계에 살려는 의지를 갖게 만든다. 두 번째 인용문에 나와 있듯이 바슐라르적 의미의 상상력은 상상하는 것을 살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김현에게 문학 텍스트 읽기는 비평의 대상인 의식적 실재를 상상력을 통해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의 인물의 자살 행위에서 김현이 주목한 것은 자살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김현이 중시한 것은 용서를 강요하는 현실을 거부하려는 자세,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구원의 세계에 대한 강한 의지이다. 이런 해석 이면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사하는 것이 리얼리즘이 아니라 ‘닫힌 현실/열린 세계’ 간의 모순을 새로운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현실 거부의 “정신적 실재”를 경험케 하는 것이 리얼리즘이라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 이청준의 현실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 부정의 ‘욕망’과 고통이 사라진 세계에서 살려는 ‘의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1980년대 김현의 현실주의 개념이 객관적 현실주의와 비극적 현실주의의 두 가지 상이한 양태로 나타난 이유를 ‘현실’과 ‘욕망’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김현이 현실주의 개념에서 상정한 현실은 인간의 욕

39) 강계숙은 「시를 발견하는 비평의 기술(記述/技術)-김현 시 비평의 방법론적 특징」에서 김현의 대립 개념은 구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대립 관계를 역동적인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현의 텍스트 읽기는 ‘대립의 발견→구조(대립항의 관계)의 발견→상동적인 것으로 파악된 또 다른 대립의 발견→...’이라는 변증법적 방법으로 의미를 구축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의 모순을 문학적 형식으로 환치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균열을 생각하게 만드는 텍스트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강계숙이 명명한 ‘모순의 발견술’로서의 시 읽기는 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소설 비평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이청준 소설론은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망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고, 욕망 또한 현실과 무관한 무정형의 열망·욕구로 규정되지 않는다. 현실과 욕망은 독립적으로는 존재를 확보할 수 없고,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⁴⁰⁾ 현실과 문학의 매개요소로서의 욕망의 이중성에 대해 파악하려면 다음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물을 해석하는 힘의 뿌리가 욕망이다. 현실 원칙 때문에 적절하게 규제된 욕망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잡리잡고 있다가, 사건들을 이야기 할 때, 슬그머니 작용하여, 객관적 사실을 자기 욕망에 맞게 변형시킨다. (중략) 그 세계는 작가가 해석하고 바꿔놓은 세계이다. 그 세계가 살 만한 세계인가 아닌가를 하는 것은 작가에게 중요하지 않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세계가 자기의 욕망이 만든 세계라는 사실이다. 세계는 세계를 욕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생생해지고 활기 있게 된다. 소설은 그 욕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그것은 시처럼 감정의 세계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철학처럼 세계관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구체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소설은 그 어떤 다른 예술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를 보여준다.⁴¹⁾

문학적으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질서있게 살아가기 위해 제도화시킨 것을, 쾌락 원칙에 의거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꿈에 비추어서 반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가는 떠돌이인데 왜냐하면 그는 제도 안에 있으면서 그 제도 밖을 꿈꾸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꿈이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가, 그 제도화는 어떠한 모순을 드러냈는가, 그 모순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를 문학은 꿈·행복에 비추어 드러내는데, 문학의 특수한 점은 그 드러냄이 결핍에 의지해 있다는 점이다. 꿈을 꿈 자체로 드러내는 방법을 문학은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예언적 철학가 할 임무이리라. 문학은 꿈에 비추어 어

40) 김현은 『문학사회학』 머리말에서 사회(현실)과 문학(욕망)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간의 삶(금반지)은 사회(금)에 의조해 있는 것만도 아니며 문학(구멍)에 의존해 있는 것만도 아니다. 금반지는 구멍과 금에 의해 존재한다.”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41) 김현, 『분석과 해석』, 231쪽.

면 것이 어떻게 결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드러낸다. 문학의 자율성이 획득한 최대의 성과는 현실의 부정적 드러냄이다.⁴²⁾

그는 검고 텅빈 썩어가는 것들을 폭넓게 껴안음으로써 그것들을 놀라움의 광휘로 감싼다. 놀라움의 광휘, 놀라움의 화려함으로 감싸인 것들은 그 부정적인 성격을 많이 잃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난다. 그것들은 시인의 정신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었다는 점에서 관념적이지만, 초월적인 세계를 상징하지 않은 곳에서 채색되었다는 점에서 물질적이다. (중략) 그 별거벗겨진 인간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가 돌연 부각된다. 그의 첫 시들의 어떤 것들이 강한 현실 비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⁴³⁾

첫 번째 인용문을 보면 소설이 제시하는 세계는 객관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욕망의 의해 ‘변형’된 세계이자 ‘해석’이 들어간 세계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소설은 세계를 변형하는 욕망 때문에 ‘생생함’과 ‘구체성’을 띠게 되고 기존의 세계가 억압했던 욕망의 만든 세계라는 점에서 욕망과 현실의 ‘얽힘’을 뜻하는 ‘전체성’을 보여주게 된다. 물론 이 때의 전체성은 또 다른 욕망의 의해 ‘부분’으로 간주될 전체성을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원일의 소설은 ‘유년기의 낙원 연장 욕망’과 ‘현실의 당위’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작가의 ‘이야기의 뿌리’가 역사적 고통에 닿아 있음을 확인한다. 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의 근원과 역사적 비극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통해 현실을 더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김현이 김원일 소설을 현실주의라 말한 이유이다. 이런 면에서 김현에게 ‘현실주의’란 현실과 욕망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현실이 보여주지 못한 세계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을 의미한다.⁴⁴⁾

42)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 199-200쪽.

43) 김현, 『말들의 풍경』, 14-15쪽.

44) 이런 맥락에서 서론에서 잠시 인용했던 “소설가의 임무는 실재 réel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지, 현실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란 문장의 실재(real)란 작가의 상상

두 번째 인용문은 문학이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에 따르면 문학이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은 유토피아적 꿈에 비추어 현실의 결핍·모순을 인식하게 만든다. 갈등이 해소된 문학적 유토피아에 비추어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현실의 결핍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학이 꿈을 꿈 자체로 드러내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학은 언어에 의해 구축된 허구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은 허위의식에 빠지는 것과 같다. 문학적 유토피아는 현실의 결핍을 드러낸다는 역할 때문에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이나 초월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초월주의나 도피주의에 빠질 수 있다.

최승호 시론인 세 번째 글은 유토피아적 꿈에 의한 현실의 부정이 무엇인지, 김현이 말하는 문학의 자율성이 왜 현실 비판적 의미를 지니는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그리고 김현이 생각하는 현실주의가 무엇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승호의 시는 인간이란 죽을 운명을 타고난 존재이지만 더러움·썩음·죽음을 미학적 상상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냄으로써 그런 삶의 의미를 묻고 그것과 거리를 두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관념적’과 ‘물질적’이란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썩음·더러움의 아름다움으로의 승화가 시인의 정신 작용의 결과물이라는 면에서 관념적이라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세계로의 초월이 아니라 이 세계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물질적·현실적이라는 점을 김현은 강조하고 있다. 관념적인 승화·초월은 억압적 현실의 부정을 위한 계기일 뿐 초월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일 수 있음에 김현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현이 말하는 이청준의 부정적 현실주의는 고통의 현

력에 의해 창조된 현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 이외의 곳에서 초월이나 구원을 찾지 않으려는 정신적 태도, 고통의 현실에서 회피·외면하지 않고 현실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세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있어야 한다”고 믿어야 하고 그것을 실패를 예정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하나의 정신적 태도이나 비극적 세계관으로서의 비극적 현실주의는 이청준 소설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⁴⁵⁾ 고통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 고통의 현실이라는 부정적 현실주의는 소설뿐 아니라 시에도 적용되어 해석과 평가의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그러나 김현의 현실주의와 유토피아에 대한 꿈으로서의 문학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개인의 욕망 그 자체라는 점은 김현 비평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김현 비평에서 욕망은 현실의 억압성에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지만 욕망은 그 자체가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점에서 김현이 설정한 문학적 부정 방법은 그 자체의 핵심적 요소로 인해 붕괴할 상황에 놓였음이 드러난다. 욕망에는 에로스적 요소와 타나토스적 요소가 혼용되어 있다.⁴⁶⁾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순간 그것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면들이 어느새 자연스러움을 붕괴시키기 시작한다.⁴⁷⁾ 욕망은 자연의 소산이면서 김현이 대립의 해법

45) 유고집 『말들의 풍경』을 보면 비극적 현실주의는 고난의 시학이란 형태로 변주되고 있다. 김현은 ‘고난의 시학’이란 새로운 범주를 제시하며 여기에 속한 시인들의 특징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난의 시학에 속하는 시인들은 초월주의나 도피주의에 기울지 않고 현실의 고난과 꺾박을 그대로 드러내고, 더 나아가 고난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는다고 김현은 설명하고 있다.

46) 김현은 이승훈의 시 세계를 설명하며 시인이 대상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확인한 것은 “어두운 충동의 세계”인데 “죽음의 세계”라는 말한다. 이에 따라 시인은 어두운 충동의 세계를 벗어나 “개인적인 고통과 승화”를 원형으로 제시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고, 이것의 결과 “죽은 예수를 무릎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이미지에 도달했음을 지적한다. 『어두움과 싱싱함의 세계』는 1980년대 중·후반 김현의 관심이 욕망의 양면성과 그것의 승화라는 주제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현, 『말들의 풍경』, 166-167쪽 참고.

47) 김현은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서문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다 채우려는 욕망이 있다. 욕망은 현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욕망의

으로 제시한 자연스러움의 파괴자라는 모순적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⁴⁸⁾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은 억압적 현실 부정의 토대이지만 그것이 현실 도피나 파괴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문학적 자율성이 욕망의 양면성에 대한 지속적 감시 속에서 성립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김현의 현실주의 개념에 내재한 또 다른 문제는 현실주의가 과연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드러냄”일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부정적 현실주의를 통한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드러냄”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미학적 형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담론적 구성물이고 언어적 “개념 속에 잡혀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식에 대한 인식”⁴⁹⁾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언어 또한 ‘소외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는 없다.⁵⁰⁾ 김현 스스로도 이성복 시에 나타난 ‘가난의 있는 그대로의 드러냄’이 현실 자체가 아니라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의 발현임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 “농민·노동자에게 농민·노동자의 가난함을 일깨워주는 시도 중

욕망은 제한될 수 없다.(중략) 위대한 선사가 되려 하면 할수록 욕망은 더욱 자란다.”라고 말하며 욕망이 인간의 생득적 욕구이면서, 만족에 향한 무조건적 충동으로서의 파괴성을 지닌다는 점을 경계하듯 지적하고 있다.

48) 김현은 마르셀 레이몽의 『젊은 운명의 여신』이라는 책에서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욕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식은 명증하게 모든 것을 보려 하지만 그 의식의 끝은 죽음이다. 그러나 의식이 죽음이듯 삶도 죽음이다. 삶에 몸을 맡기는 것은 의명의 본능에 몸을 맡기는 것이며, 곤란한 육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유혹에 몸을 맡기든 그녀는 방황하게 되어 있다.” 이 글에서 의명의 본능은 욕망을 의미하고 욕망을 가진 존재는 삶/죽음의 모순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레이몽의 글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김현,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 234쪽.

49) 이것은 김현이 바르트의 신화 이론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김현, 『프랑스 비평사』, 250쪽.

50) 김현이 장-피에르 리샤르의 말라르메론을 해설하며, 작품이란 “자기가 자기 생식의 대상이며 주체인 이상한 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작품이 자기 생식의 대상이며 주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근거를 외부에서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되는 ‘자율적 문학’의 딜레마를 함축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김현,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 254쪽.

요하지만, 고소득층·중산층에게 가난의 공간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⁵¹⁾라는 설명은 이를 보여준다. 문학은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드는 계기 이상일 수 있을까. “정치적 기술이나 관습적·사실주의적 기술이 아닌 꿈의 언어가 가능할까?”⁵²⁾라는⁵²⁾, 바르트를 향한 김현의 질문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문학이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꿈의 언어라는 것은 증명된 명제가 아니라 일종의 가설이고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의심과 재구성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가설이다.

4. 현실주의와 4·19세대의 자유

앞서 김현의 골드만 연구에서 ‘세계관’은 시기에 따라 혁명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다는 골드만의 말을 살펴본 적이 있다. 김현의 현실주의 개념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욕망의 양면성과 이로 인한 김현 비평의 딜레마는 4·19세대라는 맥락 속에 편입하여 해석하면 더 이면적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김현 비평에서 욕망의 양면성은 김현이 지향하는 자유의 이중성에 정확히 대응한다.

김현은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1986)에서 “사유는 현실에 대한 사유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4·19세대의 기본 자세⁵³⁾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이 동일시하고 있는 4·19세대가 현실과 괴리된 초월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김현은 또한 50년대 작가들과 60년대 작가들의 차이에 관해

51) 김현, 『분석과 해석』, 51쪽.

52) 김현, 『프랑스 비평사』, 269쪽.

53) 김현, 『분석과 해석』, 253쪽.

“곽학송·이병주·선우휘에게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 현기영·조정래·홍성원·김원일에게는 삶의 의미의 문제였다. 나는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 아니라 이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가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4·19세대는 좌/우, 이론/실천, 순수/참여의 이항 대립의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양자의 대립을 지양하고 삶의 전체성을 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여기서 삶의 전체성이란 현실/욕망, 현실/사유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전체성을 의미한다.

김현에게 4·19는 욕망/현실, 의식/실천 간의 합일을 경험하게 해준 총체성의 다른 이름이고 이러한 총체성은 김현의 ‘자유’ 개념의 증추를 형성한다. 그러나 김현에게 4·19는 자유의 환희와 절망이라는, 괴물과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⁵⁴⁾ 김현은 4·19 이후의 역사를 보며 역사 속에서의 총체성 구현은 불가능하고 삶의 총체성은 문학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초해 자신의 문학론을 구축한다. 4·19가 보여준 합일과 전체성은 지향해야 할 이상적 지표였고 억압적·폭력적 현실은 이러한 이상에 비추어 분석되고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김현의 현실주의가 항상 반어적·부정적·비극적이란 수식어를 수반하고 있고 이것은 모두 유사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유토피아적 꿈으로서의 문학적 이미지는 삶의 총체성을 위해 필요한 꿈이지만 그것은 허구이자 부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적 유토피아는 (문학적 이미지 속에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 없지만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부정과 반어의 태도 없이 그것을 실현 가능한 이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⁵⁵⁾

54) 김현은 4·19가 문화사적으로 환희와 환멸의 이중적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두 4·19의 상반된 얼굴을 본 사람에게 4·19는 괴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55) 김현을 포함한 문지 그룹이 예외적 개인의 상상력에 의거한 소수 집단의 역량에 의지하고 반성적 성찰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 공동체 이상의 집단에서만 ‘성

김현의 현실주의 논의에서 최종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1980년대 김현 비평에서 (부정적) 현실주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 가라는 점이다. 부정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현실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유토피아적 꿈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상을 현실로 여기는 허위의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이 뒤따라야 한다.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반영론적 리얼리즘에 대한 경계는 부정적 현실주의에서 개인적 욕망의 양면성에 대한 감시라는 형태로 전위되어 나타난다. 욕망은 유토피아적 동력이지만 환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은 부정되어야 한다. 현실로의 귀환이 욕망의 억압이 아니라 성숙한 의식이라는 인식이 이데올로기부터의 초월인가, 아니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은 김현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김현의 ‘분석과 해체’⁵⁶⁾는 이러한 의심과 긴장 속에서만 가능한 비평적 방법론이다. 이것은 문학이 추구하는 총체성과 자유는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없고⁵⁷⁾, 언어적 허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자율성의 문학론이 도달한 최종적 귀결점이라 할 수 있다. 상상력을 통해 분열이 극복된 유토피아적 상태를 경험한 의식은 총체화의 대상인 현실 역사로부터의 분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꿈으로서의 문학론과 부정적 현실주의를 채택한 비평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일 것이다.

숙한' 사회적 저항의 가능성을 찾은 것은 이른바 4·19세대 비평가들이 프랑크 푸르트학과를 위시한 당시의 지식담론과 한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 이현석, 「개인과 내면의 공동체: 이청준과 김현 문학론의 전개와 논리」, 『한국현대문학연구』 59호, 한국현대문학회, 2019, 423-424쪽.

- 56) 「비평의 유형학」에서 당시의 비평을 문화적 초월주의, 민중적 전망주의, 분석적 해체주의로 나누고 자신을 세 번째 유형에 속한 비평가로 분류한 바 있다.
- 57) 김수영 시에 대한 주목도가 상승한 이유가 “불가능을 추구하는 예술 본래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더 절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문학은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김수영의 주장이 곧 김현의 그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 21쪽.

이번 연구에서는 김현의 현실주의 개념의 두 양상과 내재적 논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1970, 80년대 리얼리즘 논쟁과 관련된 다른 비평가들과의 차이, 문학적 장르와 현실주의의 관계에 대한 것은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현, 『한국 문학의 위상/문학 사회학』(전집 1권),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사회와 윤리/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전집 2권),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문학과 유토피아』(전집 3권),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책읽기의 괴로움/살아있는 시들』(전집 4권),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프랑스 비평사』(전집 8권),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현대 비평의 양상』(전집 11권),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3.

2. 단행본

- 게오르그 루카치,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2.
_____, 홍성광 옮김, 『영혼과 형식』, 연암서가, 2021.
루시앙 골드만, 송기형·정과리 옮김, 『숨은 신』, 연구사, 1990.
홍성호,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 문학과지성사, 1995.

3. 참고자료

- 강계숙, 「김현 비평의 사르트르 수용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22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353-389쪽.
_____, 「비평에 대한 김현의 메타적 인식: ‘신비평 논쟁’의 수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127-167쪽.

- 곽상순, 「계간 『문학과지성』이 1970년대 한국소설에 끼친 영향 연구 - 김현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263-284쪽.
- 김형중, 「문학, 사건, 혁명 : 4·19와 한국문학」, 『국제어문』 49호, 국제어문학회, 2010, 137-162쪽.
- 박연희, 「김현과 바슐라르-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20호, 구보학회, 2018, 451-479쪽.
- _____, 「'김지하 봄'과 김현, 문지, 최승자」, 『동악어문학』 76호, 동악어문학회, 2018, 157-188쪽.
- 박혜원, 「김현 비평의 미학적 정치성 연구」, 『상허학보』 52권, 상허학회, 2018, 349-366쪽.
- 서은주, 「1960년대 4·19세대의 비평의식과 서정주론」, 『한국문학연구』 48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87-120쪽.
- 오형엽, 「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호 침투적 종합: 김현 비평 방법론의 방향성」, 『비교한국학』 28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0, 53-81쪽.
- 이현석, 「개인과 내면의 공통체: 이청준과 김현 문학론의 전개와 논리」, 『한국현대문학연구』 59호, 한국현대문학회, 2019, 369-429쪽.
- 조연정, 「김현 비평에서 '이론적 실천'의 의미와 비평의 역할」, 『현대문학의 연구』 5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323-364쪽.
- 허선애, 「감수성과 상상력의 리얼리즘」, 『한국현대문학연구』 51호, 한국현대문학회, 2017, 485-516쪽.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Realism in Kim Hyun's criticism

Han, Lae-hee*

Kim Hyun, who strongly criticized the climate that regards realism as an a priori truth, actively uses the concept of realism i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works in the 1980s. Starting from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concept of realism that was frequently used in Kim Hyun's criticism in the 1980s were insufficient, this paper analyzed the two aspects of realism and its internal logic in Kim Hyun's criticism, and based on this, tried to shed new light on the meaning of totality and literary autonomy that Kim Hyun's realism aims for.

In Chapter 2, the concept of objective realism and totality in Kim Hyun's Kim Won-il theory was reviewed. According to Kim Hyun, Kim Won-il shows the desire to grasp the total reality, and the totality that Kim Won-il aims for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at of representational realism. Kim Won-il shows the realization that the root of pain reaches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conflict of reality/desire. Through Kim Won-il's theory, Kim Hyun emphasizes that the totality of literature is a process that makes people recognize that life is an interaction between reality and desire.

* Soongsil University.

In Chapter 3, the concept of negative realism in Kim Hyun's Lee Chung-jun theory was analyzed. Lee Chung-jun's negative realism that Kim Hyun refers to a mental attitude not to seek transcendence and salvation outside of the reality of pain. Negative realism is requested as a creative methodology and worldview necessary for literature as a dream not to be transformed into transcendentalism or escapism.

The reason why Kim Hyun's realism appeared in two heterogeneous forms, objective realism and negative realism, can be found in the concept of totality and the duality of desire set by Kim Hyun. For Kim Hyun, since the totality of life is the entanglement between reality and desire itself, the totality in the form of alienating desire becomes the object of negation in the name of desire. Whil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re and society through reflection on the roots of desire (objective realism), a worldview is requested that reality is a place of salvation so that desire does not manifest in an escapist and selfish form. (negative realism)

However, the fact that it is none other than desire itself that jeopardizes Kim Hyun's realism and literary autonomy is the biggest dilemma facing Kim Hyun's criticism. Desire is a common source of individual/society, and desire can appear in contradictory forms of utopian aspiration and destructiveness. For this reason, the goal of realism to reveal as it is in reality has meaning only in doubts and boundaries about the fixation (ideologicalization) of desire.

In Chapter 4, the correspondence between Kim Hyun's realism and Kim Hyun's concept of freedom to the Sil-gu generation was examined. For Kim Hyun, Sil-gu has both sides of joy and despair,

which exactly corresponds to the duality of freedom that Kim Hyun pursued in literature. The totality that Kim Hyun aims for is only possible in literature, and history and reality are always objects that should be denied in the light of literary totality. Consciousness that has experienced a utopian state through literature must embrace separation from history and reality, which is the object of totalization. This will be an inevitable fate that a criticism adopting literary theory and negative realism as a dream must face.

Key Words: realism, totality, duality of desire, transcendentalism, 4 · 19, literary autonomy, freedom

■ 논문접수 : 2025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15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15일

